

## [보도자료] 쿠팡, 반려동물용품 할인전 ‘펫페어’ 진행 2만4000여개 상품 선봬

2026. 6. 1.



- 14일까지 디동펫·하림펫푸드·ANF 등 89개 브랜드 참여
- 와우회원 대상 최대 2만원 할인 쿠폰 제공

2026. 06. 01. 서울 - 쿠팡이 오늘(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반려동물용품 전문 할인전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반려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디동펫, 하림펫푸드, ANF, 네츄럴코어 등 인기 펫용품 브랜드 89곳이 참여한다. 강아지·고양이·관상어·소동물 관련 상품 2만 4000여개를 할인한다. 반려동물 위생·구강 관리용품부터 사료, 간식, 이동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았다.

대표 상품으로는 디동펫 절약 기저귀, 닥터블랭크 저자극 편백수 귀 세정제, 리스펫랩 뿌리는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준비했다. 하림펫푸드의 시니어용 더리얼 캣 그레이프리 크런치 건식 사료와 마즈 템테이션 메가팩 스낵 3종 세트, 우리와 프로베스트 그린 전연령 기능성 사료, 더주소 수제의여왕 강아지 간식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와우회원에게는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 혜택을 제공한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6만원 이상 구매 시 9000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펫페어에는 다양한 신규 입점 브랜드들이 참여해 상품 구성이 강화됐다. 강아지 이동가방 브랜드 ‘릿첼’, 해충방지용품 브랜드 ‘세레스토’, 반려동물 급수·급식기 브랜드 ‘로제코’, 고양이 스크래처 브랜드 ‘카무라라’, 뉴질랜드 사료 브랜드 ‘위시본’ 등이다.

국내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용품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구는 15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양육비도 1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며 관련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핏페어에서는 사료·간식·위생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